

한미 FTA 오늘 새벽 타결

쇠고기·자동차 진통 끝 합의

서울서 노동자 항의 분신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틀간의 연장 협상 끝인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1일 저녁까지 이틀간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2일 새벽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심야 장관급 협상에서 양측의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며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관련기사 3·4·5면> 이날 한미 장관급 연장 협상에서 미국 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초민감 품목의 관세철폐 시기와 관련해 당초의 즉시 철폐보다 요구 수준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 협상의 실마리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농업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거세게 요구했다. 특히 쇠고기 문제는 협상결렬로 이어질 정도로 미국의 요구가 강했으나 장관급 회담을 통해 최종 조율을 이뤄냈다.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다른 자동차 문제도 막판 협상 내내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의회와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거부했고,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배기량 기준 세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으나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막판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이 체결한 네번째 FTA며, 두 나라 간 양자 FTA로는 세계 최대의 교역 규모가 된다. 한편 한미 FTA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던 1일 오후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인 택시기사 허모(56·서울 관악구) 씨가 분신을 시도, 전신 3도 화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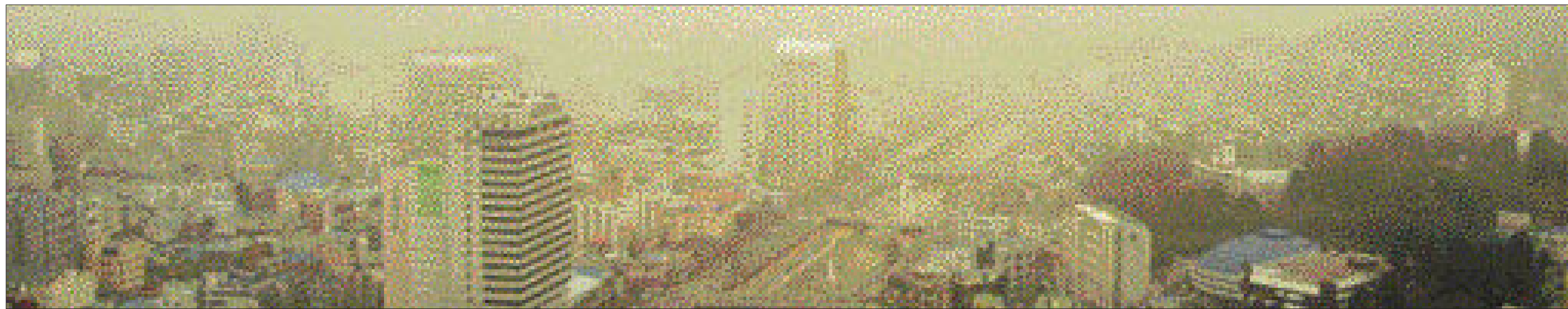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날 또 한미 FTA 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하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에 배타적인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RTA) 중 하나다. 서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확대하자는 '윈-윈'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盧대통령, 오늘 오후 대국민담화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 추진 배경과 농업 분야 등 피해 산업 대책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3일 청와대에서 전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관계자, 국정과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 관련 워크숍을 주재할

예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장관들도 이날 오전 합동 브리핑을 갖고 협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FTA와 복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두 장관은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과 관련, 우선 관심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여러 난관을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극복해 나가자는 뜻을 같이 했다. /임동욱기자 tuim@



1일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31층) 옥상에서 내려다 본 광주 시가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흐려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최악 황사... 초중고 임시휴교 검토

'이상 너울' 영광 칠산바다 급습

광주·전남 사상 첫 경보 발령

올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엄습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첫 황사경보가 발령되고 일부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면>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황사경보가 발령됐다. 광주·

전남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황사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10일 이후 처음이다. 광주의 경우 이날 오후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1천10μg/m를 기록했으며, 동구 충금동 일대가 1천331μg/m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황사특보 도입 이후 광주에서

기록된 최고 수치다. 평소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가 60μg/m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0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이날 광주를 뒤덮은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황사는 2일 오전부터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날 중 2~3차례 더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황사 경보가 2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질 경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황사특보가 주의보로 전환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광주의 황사 발생 횟수는 ▲2002년 14회 ▲2003년 1회 ▲2004년 8회 ▲2005년 9회였으며, 올 들어 벌써 13회가 발생했다. 또 황사특보 도입 이후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황사 특보가 발령됐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4명 사망·수십억 피해

전남과 전북 서해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異常) 너울이 발생, 4명이 숨지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7면> 지난달 31일 새벽 영광군과 신안군, 전북 부안군 등 칠산바다 연안에 높이 7~8m의 엄청난 파도가 밀어닥쳐 범성리 인근 해안가 상가와 주택 120여동이 침수되고, 선박 55척을 비롯한 해대 양식시설·어구·부고 등이 유실

되거나 전과됐다. 침수된 장비를 점검하던 영광원전 직원 지모(38)씨도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너울은 새벽 1시30분께 시작돼 새벽 5시까지 6~7회나 밀려왔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 인근 바다도 바닷물이 마을로 범람, 주택 50여 가구와 차량 20대가 피해를 입었다. 고창군 상하면 용두마을 앞 해변에서도 갑자기 밀려온 높은 파도로 해변에서 실뱀장어를 잡던 최모(여·43)씨

등 3명이 숨졌다. /안현주기자 ahj@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우람한 학구적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j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u.ac.kr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김

IOPE